

주말 아침이면 집 안은 정숙한 활기로 가득 차곤 했다.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 구수한 찌개 냄새, 그리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청소기 소리. 어릴 적부터 나에게 집안일이란 마치 자연의 이치처럼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당연히’ 완성되는 풍경이었다. 그 풍경의 중심에는 늘 어머니가 계셨고, 나와 아버지는 주말이라는 이유로 거실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휴식’이라는 권리를 누리곤 했다. 그때는 그 권리가 누구의 몫에서 비롯된 것인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다.

학창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스스로를 제법 개방적이고 평등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뉴스나 매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면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고, 차별 없는 사회를 지지한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나의 그 고상한 인식은 정작 가정이라는 가장 익숙한 공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평등을 말하면서, 집에 돌아오면 다시 소파 위의 방관자가 되는 이중적인 나를 나는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했다.

균열은 자취를 시작하며 찾아왔다. 혼자 살게 되면서 매일 누군가가 치워주던 공간의 무게를 비로소 스스로 짊어지게 되었다. 이사 후 첫 일주일, 나는 며칠 연속 야근을 핑계로 집안일을 미뤄두었다. 그러자 며칠 만에 수건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고, 먼지는 책상 모서리마다 커커이 쌓였으며, 찌개 하나를 끓여 먹은 대가로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들고 밤늦게 분리수거장을 서성이던 그날,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그동안 내가 누려온 ‘평온한 휴식’은 다른 누군가의 ‘쉬지 않는 노동’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 노동은 결코 저절로 완성되는 풍경이 아니었다.

이후 가족들과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 나는 집안일을 대하는 나의 단어부터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무심코 쓰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 대신 “오늘 저녁은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돕는다’는 표현 속에는 집안일의 원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시혜를 베푸는 보조자일 뿐이라는 오만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는 것은 사소해 보였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때마다 나 스스로도 책임의 무게를 조금씩 실감하게 되었다.

초반의 변화는 어설프다. 요리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고, 국을 너무 짜게 끓여 온 가족이 물을 몇 잔씩 들이켜야 했던 저녁도 있었다. 분리수거 날짜를 헛갈려 재활용품을 며칠이나 베란다에 방치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쁘데 놔두라”며 손사래를 치셨고, 나 역시 익숙지 않은 가사 노동에 몸이 빠근해지는 피로를 느끼며 지치기도 했다.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같은 그릇을 두 번 닦거나, 누구도 화장실 휴지를 채워 넣지 않아 곤란했던 웃지 못할 순간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단순한 노동의 분배에서 오지 않았다. 역할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에서 서로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 것이 핵심이었다. 아버지는 내 제안으로 공구함 대신 처음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셨다. 평생 수동적인 소비자로만 주방에 섰던 아버지가 휴대폰으로 레시피를 검색하고, 간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어느 날은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는 실수를 하시고도 끝내 그 그릇을 다 비워내며 “다음엔 더

잘해보겠다”고 웃으셨는데, 그 서투른 다짐이 나에게는 어떤 근사한 선언보다 크게 다가왔다. 어머니 역시 항상 짊어지던 가사 책임의 부담을 조금씩 내려놓고, 주말 오후 온전히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 집을 나서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오랜만에 화실 수업을 다녀오신 날, 물감이 살짝 묻은 손으로 활짝 웃으시던 어머니의 얼굴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우리는 집안일 분담표를 만들어 냉장고 옆에 붙였다. 요리, 청소, 분리수거, 욕실 청소 등 각자의 영역을 정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서로의 영역을 메워주기로 했다.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대에 빨래를 탈탈 털어 말리는 일, 식사 후 정성스레 그릇을 닦아 찬장에 정리하는 일은 더 이상 여성이 전담하는 ‘돌봄’이 아니라, 이 집이라는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중’이었다. 분담표는 완벽하지 않아서 종종 수정되었지만, 그 수정의 과정 자체가 우리가 서로의 상황을 계속 살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집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얼마 전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한 친구는 자신도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청소기 돌리는 법을 알려드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또 다른 친구는 그제야 자신의 집을 돌아보며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사소한 대화 하나가 서로의 가정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은 파장이 되는 것을 보며, 나는 변화란 결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이렇게 옆 사람에게 건네는 한마디에서부터 번져 나간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여자의 일’도, ‘남자의 일’도 없다. 오직 서로의 일상을 지탱하기 위해 기울이는 정직한 수고가 있을 뿐이다. 주말 아침,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에서 서로가 끓여낸 차 한 잔을 나누며 나는 생각한다. 양성평등이란 사회적인 담론이나 거창한 구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마주치는 가족의 손을 바라보고, 그 손에 들린 무게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려는 아주 작고 일상적인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그 집의 냉장고 옆에도 이런 분담표 하나쯤은 자연스럽게 붙어 있기를, 그래서 그 집 아이들에게는 ‘누구의 일’이라는 구분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기를 조용히 바라본다.